연구 자료

호주 밀 산업의 현황과 변화

강 창 용*

1. 머리말
2. 생 산
3. 유 통
4. 소비 및 수출
5. 맺음말

1. 머리말

호주는 단일 섬으로는 세계 최대인 하나의 대륙으로 7,682.3천 ㎢면적에 약 1,800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호주는 매년 160억$ 이상의 농업생산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의 80% 이상을 해외시장을 통해 실현하고 있는 농업대국이다. 특히 밀은 1,000만ha 이상의 토지에서 2,000만톤 이상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중 85% 이상이 해외시장에서 소비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매년 300만톤 정도의 밀을 수입하는데, 이 가운데 호주의 비중이 약 23%이다. 나아가 우리나라의 밀 수입 수요는 매년 증가세를 걷고 있다. 밀은 쌀의 보완적 측면을 넘어 대체적인 성격을 띄어가고 있어 우리 국민의 식생활과 분리될 수 없는 중요한 품목이 된지 오래다.

밀을 보다 저렴한 가격 아래에서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문제는 농업의 차원을 떠난 국가적 과제이다. 따라서 우리의 주요 수입선인 밀 생산국의 관련된 여러 가지 변화는 우리의 밀 확보방안을 마련하는데 기본적인 정보가 될 것이다. 주요 수입선의 하나인 호주의 밀 산업의 현황과 변화를 정리하는 데는 이러한 연유에서이다.

본문에서는 먼저 호주에서의 밀 생산과 유통 및 수출현황을 살펴보았다. 특히 호주 밀의 성장에 있어서 막중한 역할을 수행해 온 호주 밀위원회에 대해서도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최근 호주 밀 산업의 변화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정리하는 것으로 맺음하였다.

* 부연구위원

2. 생 산

2.1. 자연적인 생산여건 및 기본농법

호주 밀의 가장 큰 주산단지(wheat belt or wheat/sheep belt)는 동부고원지대(the eastern upland)[1]에 위치해 있다. 이 단지는 퀸즈랜드(Queensland), 뉴 사우스 웨일즈(New South Wales), 빅토리아(Victoria)와 남부 사우스 오스트렐리아(South Australia)를 관통하고 있으며, 마치 초생달 모양을 하고 있다. 그 다음의 주산단지는 웨스턴 오스트렐리아(Western Australia)의 남서부에서 북으로 펼쳐져 있다. 물론 호주의 다른 주에서도 밀이 재배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밀생산의 입지를 결정하는 자연적인 조건으로, 강우량, 토질 및 지세 등을 들 수 있다. 호주 내에서 밀 재배의 입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는 강우량이다. 호주의 기후조건이 밀 재배에 부적합한 것은 결코 아니지만, 대부분의 지역은 너무 습하거나 혹은 너무 건조하다. 따라서 밀 재배는 해안으로부터 400㎞ 이상의 내륙에서는 어렵게 되어 있다. 재배가능 지역내에서도 밀의 재배는, 보다 소득이 높은 낙농이나 원예 등의 경영에 필요한 습한 토지를 제외한, 건조지역에서 재배되는 특징을 가진다.

강우량의 경우, 연평균 강우량이 일정하다고 하더라도, 계절적으로 언제, 얼마가 오며, 그것의 효율적인 이용범위 등은 어떠한가 등이 중요하다. 호주 밀 주산지역에 있어서 밀의 성장기인 5월에서 10월까지의 강우량은 대개 230㎜~380㎜범위에 있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 물의 의존형태는 상당히 다르다. 예컨대 서부 주산단지의 경우 봄(9월~11월)의 강우량이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겨울 강우량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남부지역의 경우에는 봄비가 밀의 생장에 결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으며, 동부의 경우 아열대 여름의 강우를 토양이 얼마나 많이 보존하고 있느냐가 생산에 중요한 요인으로 되어 있다. 동부지역에 2월~4월 사이에 내리는 130㎜~180㎜의 대부분은 토지 표층이 깊고, 보습력이 강해서 파종때까지 잘 보존된다. 이렇게 지층에 보존된 물은 강우량이 불충분한, 그러나 어느 시기보다 물을 필요로 하는 8월~9월에 깊은 뿌리를 통해 이용되고 있다.

호주 밀 재배 지역의 흙은 대개 5종류로 구분되는데, 이것은 날씨 및 밀 종자와 함께 생산되는 밀의 품질을 거의 결정한다. 그것은 적갈색 흙(red-brown earths), 백사토(bleached sandy soils), 갈색 흙(brown soils or Mallee soils: 남호주산 유칼리 나무[2]가 많은 지대의 흙), 회갈색토(grey soils) 및 흑토

---

[1] 호주는 크게 3개의 지형구조로 분류된다. 이 가운데 Eastern Upland는 타스만바다의 지층이 호주 동부의 변두리를 밀어 올려 형성된 지역으로, Cape York으로부터 타스마니아에 걸친 산맥과 융기지역이다. 일반적으로는 Great Dividing Range로 잘 알려져 있으며, 호주의 중요한 강들이 이 주변에 자리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2] 유우칼리 관목지대(mallee scrub)는 뉴 사우스 웨일즈의 서부, 빅토리아 서부지역에서 주로 볼 수 있는데, 이 관목지대의 파괴는, 특히 바람에 의한 토질의 조악화(wind erosion)를 부추기고 있어 중요한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black soils)이다. 호주 밀의 상당부분은 적갈색의 흙에서 재배되고 있는데, 이 색깔의 흙은 주로 뉴 사우스 웨일즈, 사우스 오스트렐리아 및 빅토리아에 분포하고 있으며, 농사에 매우 좋은 땅으로 알려져 있다. 회갈색의 흙은 빅토리아 Wimmera지역, 즉 동부 주산단지의 남쪽에서 많이 볼 수 있으며, 검은 색깔의 토양은 뉴사우스 웨일즈의 북쪽과 퀸즈랜드의 Darling Downs[3]에 걸쳐 있다. 토질이 좋은 적갈색 및 검은 색의 토지 이외의 대부분은 밀의 재배에 충분하게 비옥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지역에서의 규칙적인 무기질 비료, 특히 인산 및 질소비료의 시용은 바로 이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비옥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통적인 윤작농법을 도입, 운용하여 오고 있다.

작물 재배지와 목초지의 상호 전환, 즉 초지와 곡물간의 윤작은 호주 곡물생산력 증진에 밑거름이 되어 왔으며, 동시에 조악한 지력유지문제를 해결해 온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 잘 알려진 사실대로 목초대용 콩과류 식물(pasture legumes)은 땅 속의 질소와 유기물을 풍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적은 질소질 비료의 시용으로도 밀의 연작을 가능하게 해준다. 아울러 이러한 목초지 윤작(pasture rotation)은 토지의 안정성을 가져오고, 초지에서의 가축사양을 가능케 하는 등의 농가경영의 다양화를 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초지화의 주기가 과거 3~5년에서 최근에는 1~2년으로 단축되고 있다. 몇몇 농가에서는 윤작체계에 곡물대용 콩과류(grain legumes, for instance lupins)를 도입하여 곡물류의 병충해 주기를 파괴하는 유용함을 추가로 얻기도 한다.

최소경운(minimun or reduced tillage)은 호주내 밀 재배에서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경운법이다. 이것은 목초지 혹은 곡물 재배지내 땅속의 잔유물이 보존된 상태로 경운하고 씨를 뿌릴 수 있는 농기계의 이용과 효과적인 화학적 잡초방제에 의해 가능한 경운법이다. 최소경운은 농기계 이용시 부하를 적게 하여 연료비 등을 감소시킨다. 더욱 중요한 것은 표층 최소 경운에 따라 토양내 습기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이는 지력유지와 함께 토양의 안정성을 배가시킨다. 이러한 경운법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지속적인 농법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최소경운은 토양자원을 상대적으로 잘 보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2.2. 재배면적 및 생산량

호주에서 재배되는 밀의 종자는 대부분 봄밀(spring wheats)이다. 이것은 보통 북반구에서 재배되는 것이다. 이들 밀은 늦은 가을에서 이른 겨울에 걸쳐 파종된 후, 봄에 빠르게 성장한다. 그리고 초여름과 한여름에 성숙한다. 수확은 주에 따라 약간 다르나, 먼저 퀸즈랜드에서 9~10월부터 시작되어 남쪽으로 이동되어 간다. 일부 남부 웨스턴 오스트렐리아에서는 1월까지도 수확하는 경우가 있다.

재배되고 있는 밀의 종자는 교잡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대부분 3세대 종이다. 가장 널리 재배되는 종은 맥시코 종자인 WW15로

[3] Darling Downs는 호주의 3대 평원-Canning Basin, Nullarbor Plain-의 하나로 브리스번(퀸즈랜드의 수도)의 서쪽에 위치한 해발 350~600m 사이의 비옥한 토지를 말한다.

표 1 **호주의 밀 재배면적**

단위: 천ha

구 분	NSW & ACT	Victoria	SA	WA	QLD	Tasmania	총 계
1987/88[1)]	2,464	1,026	1,556	3,312	646	1	9,005
1988/89[1)]	2,309	931	1,520	3,297	768	1	8,826
1989/90[1)]	2,123	952	1,557	3,499	894	1	9,026
1990/91[1)]	2,166	911	1,448	3,632	1,060	1	9,218
1991/92[2)]	1,499	664	1,297	3,230	492	1	7,183
1992/93[2)]	1,694	821	1,419	3,669	669	1	8,273
1993/94[2)]	2,053	790	1,209	3,859	536	1	8,448
1994/95[2)]	1,350	854	1,469	3,974	330	1	7,978
1995/96[3)]	2,477	896	1,614	4,049	684	1	9,721
1996/97[3)]*	3,419	1,003	1,551	4,356	997	1	11,327
10년 평균	2,155	885	1,464	3,688	708	1	8,901

주: 1) $20,000 이하 생산자 제외
2) $22,500 이하 생산자 제외
3) $5,000 이하 생산자 제외
* 추정치

자료: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based on estimates and forcasts)

부터 유래한 것이다. WW15에 의한 교잡종은 일반적으로 춥고 강우가 많은 지역에 아주 잘 적응하는 종자이다. 또다른 주요 종자들은 호주산 Gabo와 Insignia로부터 유래한 것이다. Gabo는 빨리 성숙하고 특히 밀벨트의 무더운 지역에 잘 적응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호주내 대부분의 종자는 호주산과 해외산의 교잡에 의해 만들어진 것들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호주 밀의 재배면적은 1990년대 초반 약간의 감소추세를 보인 이후 회복추세에 있다. 1996/97년도의 재배면적은 과거 10여년에 걸쳐 최대치인 11,327천 ha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4]. 이는 과거 10년 연평균 재배면적인 8,901천 ha를 훨씬 초과하는 것이다. 호주내에서 가장 많이 밀을 재배하는 웨스턴 오스트렐리아의 밀재배면적은 3,688천ha, 전체의 약 41%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뉴 사우스 웨일즈(2,155천ha), 사우스 오스트렐리아(1,464천ha), 퀸즈랜드(708천ha)의 순이다. 대체로 각 주의 밀 재배면적은 해마다 약간의 증감을 보이고 있는 반면, 웨스턴 오스트렐리아의 재배면적은 그 규모는 적으나 증가추세를 보여오고 있다.

지난 40여년을 통해 볼 때 호주의 밀생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960/61년 7,449천톤, 1970/71년 7,890천톤, 1980/81년 10,856톤에 이어 1996/97년도 호주 밀의 총생산량은 무려 23,586천톤[5]으로 추정된다. 이는 1939/40년 이래 사상 최대의 수치이며, 밀 생산에 적

[4] 호주 밀 재배면적의 최대치는 1983/84년에 기록한 12,931천 ha이다. 1978/79~1985/85년 사이 7개년은 호주 밀산업의 최대 전성기로 기록될 수 있다. 이 당시 7년간 연평균 재배면적은 약 12백만 ha였다.

[5] 화폐액으로 환산하면 1960/61년 A$4억에서 1996/97년에는 A$47억으로 증가하였다.

표 2 **호주의 밀 생산량**

단위: 천ton

구 분	NSW & ACT	Victoria	SA	WA	QLD	Tasmania	Australia
1987/88[1)]	3,997	1,882	1,803	3,882	718	4	12,286
1988/89[1)]	4,105	1,691	1,361	5,225	1,550	2	13,934
1989/90[1)]	3,423	1,961	2,607	4,800	1,420	2	14,213
1990/91[1)]	4,128	1,493	2,021	5,449	1,973	2	15,066
1991/92[2)]	2,183	1,150	2,141	4,736	344	3	10,557
1992/93[2)]	3,583	2,015	2,421	5,979	735	5	14,738
1993/94[2)]	4,773	2,011	2,201	6,702	558	4	16,249
1994/95[2)]	764	898	1,507	5,652	200	3	9,024
1995/96[3)]	4,660	1,962	2,887	6,900	563	3	16,975
1996/97[3)]*	8,622	2,432	2,847	7,702	1,978	5	23,586
10년 평균	4,024	1,750	2,108	5,703	1,004	3	14,663

주: 1) $20,000 이하 생산자 제외
2) $22,500 이하 생산자 제외
3) $5,000 이하 생산자 제외
* 추정치

자료: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based on estimates and forcasts)

합한 기후와 대부분 주에서의 재배면적확대에 기인한다. 즉 사우스 오스트렐리아를 제외한 전지역의 밀재배 면적이 전년에 비해 늘어났다. 잘 알려진대로 호주의 밀산업은 국제시장에 강하게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생산의 가격지표는 국제가격이 되며, 이것의 변화는 차기년도의 밀생산 의사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그런 면에서 1995/96년도의 높은 국제 밀가격, 톤당 US$232.50[6]는 당연히 호주내 밀 재배면적의 확대를 부추겼다.

여기에 밀생산에 적절한 기후조건은 ha당 생산량을 2.08톤까지 끌어 올려 전년의 1.75톤과 평년 수준인 1.63톤보다 월등히 높다. 과거 10년간의 평균 생산량이 14,663천 톤임에 비춰 볼 때, 1996/97년도의 생산량은 가히 최고로 기록될 것으로 예상된다. 각 주의 생산량을 보면, 역시 웨스턴 오스트렐리아의 생산량이 제일 많으며, 다음으로 뉴 사우스 웨일즈, 사우스 오스트렐리아, 빅토리아, 퀸즈랜드가 뒤를 잇는다.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보면, 호주내 최초의 성공적인 재배를 기록한 타스마니아주의 단위 면적당 수량이 3.48톤/ha으로 다른 주의 추종을 불허한다. 빅토리아와 뉴 사우스 웨일즈의 1.97톤/ha, 1.78톤/ha는 한마디로 이 지역의 자연적인 밀재배조건이 상대적으로 우수함을 입증하고 있다.

2.3. 국제적 지위

지난 5개년 동안 세계 밀의 생산은 561.4백만톤에서 587.8백만톤으로 증가하였다. 세계 밀 생산에 있어서 주요국의 생산규모 서열은 대체로 중국, EU, CIS, 미국, 인도, 캐나다, 호주의 순이다. 호주는 1997/98년 15.2백만톤

[6] 이것은 FOB가격이며, 1994/95년의 US$186.96에 비해 US$45.54, 무려 24.6%가 오른 것이다.

표 3 **세계 밀생산, 무역 및 재고**[1)]

단위: 백만톤

구 분	1993/94	1994/95	1995/96	1996/97[4)]	1997/98[5)]
주요 생산국별 생산량					
중국	106.4	101.0	102.2	110.3	117.0
EU[2)]	81.1	85.5	87.4	99.3	95.3
러시아	82.7	59.9	59.5	63.5	74.7
인도	56.8	59.0	65.8	62.6	66.5
미국	65.4	63.2	59.5	62.1	68.2
캐나다	27.2	23.2	25.0	29.8	23.0
호주	16.9	9.0	17.0	23.5	15.2
파키스탄	16.2	15.2	17.0	16.9	17.2
터어키	16.8	14.7	15.5	16.2	16.5
아르헨티나	9.2	11.3	9.5	16.0	13.0
기타	76.0	83.9	82.1	82.5	81.2
합 계	561.4	525.9	540.5	582.7	587.8
무역					
1. 주요 순수출국					
미국	32.9	32.4	33.4	26.5	30.5
캐나다	18.2	21.3	16.9	17.9	18.5
호주	12.8	7.9	12.1	17.8	13.0
EU[2)]	19.1	16.1	12.2	16.0	15.5
아르헨티나	4.5	7.9	4.4	10.0	9.0
2. 주요 순수입국					
이집트	5.9	6.2	6.3	6.8	7.0
이란	3.5	3.3	2.8	6.7	5.0
일본	6.0	5.7	5.7	6.0	6.1
브라질	5.8	6.5	5.5	5.5	5.8
인도네시아	2.9	3.3	3.5	4.2	4.6
한국	5.9	4.1	2.4	3.3	3.3
파키스탄	2.1	2.0	1.9	3.1	3.5
중국	4.5	10.1	12.5	2.7	3.0
러시아	6.2	3.8	3.7	2.4	2.6
순 수출국의 재고[3)]	47.4	34.4	34.2	34.8	36.2

주: 1) 7월-익년8월 기준.
2) 15개국 기준이며 EU내 무역제외
3) 50,000톤 이하시 아르헨티나 이월재고 제외
4) 추정치
5) 예상치

자료: International Grains Council. September 1997.

의 생산이 예상되어 세계생산의 2.6%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년도의 4%에 비해 상당히 하락한 수치이다. 그러나 수출에 있어서의 비중은 단일국가로는 3번째의 수출대국이다. 전체적인 생산량의 하락으로 인해 전년대비 수출물량의 감소가 엿보이지만 1997/98년 13.0백만톤의 물량이 수출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생산량 대비 수출물량 비율

은 세계에서 가장 높다. 즉 국내생산밀의 약 86%가 수출되고 있어 수출시장의 정황변화는 호주 국내 밀 산업의 상황을 좌우한다.

3. 유 통

오랜동안 호주 밀 유통의 핵이 되어 오고 있는 호주 밀 위원회(AWB: Australian Wheat Board)는 1939년 2차대전 발발시 입법된 국가안전법(National Security Act)하, 밀취득 규제(Wheat Acquisition Regulations)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구이다. 규정에 의하면 AWB는 밀의 생산, 구입, 조작, 저장, 판매 및 선적까지를 총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to purchase, sell and dispose of wheat and wheat products, and handle, store and ship wheat"). 이 규제는 1948년 밀 산업의 안정적인 성장계획과 조직화된 마켓팅의 필요성에 의해 밀 산업 안정법(Commonwealth and Complementary State Wheat Industry Stabilization Acts)으로 대체된다. 이 법은 1948/49년을 포함하여 5개년 동안 실시되어 온다. 그 후 8개의 여러 법에 의해 이러한 규정이 승계되다가, 1989년 밀 유통법(Wheat Marketing Act)이 제정되고, 사전에 5년이라는 적용유효기간이 주어져 왔다. 현재 밀 유통을 지배하는 법은 여전히 1989년 7월1일자 법률이지만 1989/90년에 중요한 효력이 중단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AWB의 주요기능은, 먼저 밀 재배 농민의 순수 소득을 증대시키고, 곡물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아울러 생산자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에의 참여로 요약된다. 이를 위한 활동은 생산지도에서 판매수입의 배분까지 광대한 영역에 걸쳐 있다. 물론 연구지도까지도 AWB에서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역할과 권리와는 달리 책임부분도 1989년의 법률에 나타나 있다. 순수입 극대를 위해 유통(저장, 조작 및 수송 등)비용을 최소화하고 그 활동에 대한 책임을 진다. 또한 생산농민들의 합리적인 마켓팅 선택에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해야 한다.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기회의 확대 역시 AWB의 책무사항이다. 광범위한 AWB의 책임범위는 곡물산업을 포함한 호주 모든 산업수준에서 요구되고 있는 개혁압력의 결과로 볼 수 있다. 규제완화 및 미시경제개혁으로 특징되고 있는 이 개혁은 1980년 이후 1990년대에도 계속되고 있다. 호주정부는 범국가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국가경쟁력 제고정책(National Competition Policy)을 통해 부족하다고 생각해온 분야의 대외경쟁력 획득을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는 금융시장의 규제완화 및 공공기업의 사유화 및 상업화가 포함되어 있다.

AWB의 또다른 중요한 기능은 정보의 수집과 평가, 확산이다. 특히 호주 밀의 상당량이 수출을 통해 현금화되고 있기 때문에 해외시장에 관련된 정보는 그 자체 소득이 된다. AWB에서 뉴욕, 홍콩, 도쿄 및 카이로에 현지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필요성을 충족하기 위해서이다.

3.1. 저장 및 조작활동

호주에 있어서 곡물의 저장과 조작은 일차

적으로 각주에 있는 6개의 대규모 곡물취급 기구(BHA: Bulk Handling Authority)에서 떠맡는다. 이 하부구조는 중앙 저장시스템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이와 달리 농가단위 및 상업적인 개인차원에서 저장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미미한 규모이다.

BHA는 각 주에 소재하고 있으며 전통, 지리적 위치, 계획수립과 수행의 차별적인 성격으로 인해 배타적으로 운영되어 오고 있다. 또한 BHA는 주요 수출 터미널과 육상 또는 철로에 의해 연결된 수집시설망(a network of country receival facilities)을 확보하고 있다. 물론 적지 않은 지방 혹은 중앙단위의 준보관소(subterminal)를 두어 전체적인 조직운영의 유연성을 증가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은 가능한한 수송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대량의 곡물을 보관하고 있으며, 보관능력을 초과할 경우 다른 지역의 보관시설에 넘기기도 한다.

호주 중앙저장 시스템내의 수집시설망은 어림잡아 전국에 900여개가 있으며, 이들은 17개 항만의 터미널[7]과 연결되어 있다. 중앙저장 시스템은 약 27백만톤 정도를 저장할 수 있는바, 수집시설망이 약 18백만톤, 터미널이 6백만톤, 기타 보관시설에서 3백만 톤을 커버한다. 따라서 이러한 대규모의 저장시설 때문에 약간의 증수가 있다하더라도 보관의 문제는 쉽게 발생하지 않는다. 호주는 습기가 적고 깨끗한, 병해충에 오염되지 않고, 화학적 물질의 잔유가 거의 없는 신뢰할 수 있는 공급자로써의 명성을 얻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여 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위의 대규모 중앙보관·관리 시스템과 마켓팅간에 이뤄지고 있는 밀접한 운영관계는 호주의 명성획득에 많은 기여를 하여 오고 있다.

BHA의 주요 기능은 분류(classification), 분리(segregation), 곡물위생(grain hygiene), 품질보증(quality assurance), 안전저장(safe storage), 곡물수송(grain transfer) 및 저장관리(stock control) 등이다.

분류는 곡물 수집시 수집장소에서 발생하는 최초의 업무이다. 물론 이 업무는 마켓팅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기본적인 활동으로 생산자 및 소비자 모두의 욕구를 충족시켜준다. 아울러 호주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격지원제도(pooling system)를 위해서도 필요하며, 나아가 유통과정에서의 효과적인 재고관리에도 중요한 작업이다. 이 목적수행에 필요한 수집기준의 설정은 BHA들간의 협의에 의해 이뤄진다. 동시에 각 BHA는 수집시점에서 사전에 만들어진 표준과 일치하여 올바르게 곡물을 분류하였는지에 대해 책임을 진다. 사실 밀의 인도시점에서 이뤄지는 분류작업은 매우 복잡할 수밖에 없다. 특히 다양화되어 가고 있는 수요에 부응한 분류가 되기 위해서는 곡물의 물리적인 특성을 커버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강화되고, 적용 또한 엄격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농장의 전체 생산물 대상이 아닌 화물 하나하나별로 단백질을 검사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배경에서이다.

곡물의 등급과 곡물타입의 분류에 기초한 분리는 분류다음에 이뤄지는 BHA의 작업이다. BHA는 수집단계에서 등급화를 당연히 할 수 있으며, 등급화에 의해 분류된 상태를 국내 또는 해외의 소비자에 최종 분배되는 경로

[7] 퀸스랜드 3개, 뉴사우스 웨일스 2개, 빅토리아 2개, 사우스 오스트렐리아 6개, 그리고 웨스턴 오스트렐리아 4개이다.

와 기간 동안 당연히 유지해야 한다. 밀의 경우 이 작업은 매우 복잡하다. 어림하여 호주 밀의 51% 정도는 호주표준흰밀(Australian Standard White)이며, 20% 정도는 호주고급흰밀(Australian Premiun White)이다. 12% 정도는 호주 경질밀(Australian Hard)이고, 5% 정도는 우수경질밀(Prime Hard), 나머지가 약 12%를 차지한다. 지리적인 차이와 품질의 차이에 기초하여 시장요구를 최고로 만족시키기 위해 보다 광범위한 분리가 일정한 기준에 의해 이뤄진다. 밀의 경우 대개 한 생산시기에 50종류의 분리가 이뤄질 정도로 복잡[8]하다.

곡물위생을 유지하는 것은 극히 중요한 BHA의 기능이다. 호주수출관리법(Australia's Export Control Act)에 따르면 수출시점에서 모든 곡물에 대한 병해충의 허용오차는 제로(nil tolerance)이다. 곡물의 경우 병해충의 감염이 용이한 환경적인 조건 아래에서 장기간 중앙관리시스템에서 보관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각종 균과 병해충으로부터의 곡물보호, 즉 곡물위생을 유지하기 위해 곡물의 습기를 많이 제거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그간 화학적 처리와 훈증방제가 곡물의 위생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 내성증대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인류 섭생을 위한 식품내 잔류농약의 출현은 시장반응을 증폭시켜왔다. AWB와 BHA에서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새로운 방제기술을 개발, 보급함으로써 호주 곡물의 마켓팅 기회를 증가시키고 있다.

[8] 밀 이외의 경우 그리 복잡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경우 두 서너 종류로 분리된다.

3.2. 수송 패턴

곡물의 수집·분산시스템은 주로 육로 수송에 의존하고 있다. 전형적으로 육로수송은 농가에서 수집시설망까지, 또다른 하나는 수집보관 장소에서 항만 터미널이나 국내 소비지까지의 수송으로 대별된다. 물론 농가로부터 직접 소비지로 혹은 곡물상이나 항구 터미널의 수집시설로 곧바로 이송되는 예외도 있다. 농가에서 일차 수집시설까지의 수송은 전통적으로 생산자가 직접 하고 있으며 계약에 의한 화차운송도 있다.

육로에 의한 수송 가운데 철도에 의한 수송이 주를 이루고 있다. 밀과 철도는 역사적으로 볼 때,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밀재배 지역의 확대와 여기에 필요한 사람을 비롯한 모든 자원 및 생산물의 수송을 위한 철도시설은 가장 중요한 정부사업이었으며, 이것은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교두보이기도 하였다. 아울러 저장과 조작하부구조의 발전을 유발하기도 하였다. 철도는 대규모의 수송을 가능케 하여 결국 밀의 국가적 대외경쟁력 제고에 커다란 이바지를 하여 온 것이다. 내륙운송업무는 법률적인 장치하에 어느정도 주의 독점력 행사가 인정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관리의 범위는 주에 따라 다를 뿐만아니라, 상업적인 경쟁 및 시장규제 철폐와 같은 미시경제 개혁[9]에 의해 많이 완

[9] 호주내에서 곡물의 저장조작과 수송에 관련된 규제가 1989년 Royal Commission의 건의에 기초하여 철폐되었다. 따라서 AWB는 효율성, 신뢰성 및 서비스의 기준에 의해 어느 주에서든지 수송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제는 곡물 수송시 법률적인 규제를 받지 않게 되어 있다.

화, 수정되고 있다. 수집시설망에서 항구까지의 평균 철도수송거리는 주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약 350km이다.

곡물수송에 있어서 자동차에 의한 육로수송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다. 규제완화 및 미시개혁정책은 보다 많은 참여의 기회를 줄 뿐만아니라, 육로수송의 기술 또한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하더라도 퀸즈랜드나 뉴 사우스 웨일즈, 빅토리아 등에서는 법적인 장치와 함께 대부분의 곡물을 철도로 수송하고 있다. 이에 비해 사우스 오스트렐리아나 웨스턴 오스트렐리아에서는 보다 많은 곡물이 자동차에 의한 육로수송에 의존하고 있다. 사우스 오스트렐리아의 경우 주요 곡물의 생산지가 해안과 멀지 않은 거리내에 밀집되어 있어 항구의 터미널까지의 거리가 비교적 짧다. 따라서 직접 자동차를 이용한 항구까지의 육로 수송이 보다 경제적이다. 웨스턴 오스트렐리아는 적지않은 수집시설망이 철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연 자동차에 대한 이용률이 높다.

3.3. 마켓팅

호주 밀은 9개 주요 품목으로 유통된다. 물론 생산 지역, 주, 종자 및 단백질 함유 정도에 따른 주문자의 요구에 의해 만들어질 수도 있다. 연간 약 40여종의 밀 생산물을 이용할 수 있음은 이 때문이다. 호주 밀은 크게 식용과 사료용, 두가지 범주[10]로 분류된다.

호주 밀의 국내 시장은 강력한 법적 권한을 가진 AWB에 의해 규제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통제는 점차 완화되고 있다. 먼저 사료곡물의 거래가 자율화되었다. 또한 AWB가 가지고 있던 국내 행정판매가격의 결정권과 강제 구입의 권한이 퀸스랜드를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없어지면서 국내용 밀의 거래는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가능해졌다. 생산 밀을 AWB통합 시스템에 넘기느냐 혹은 개별적으로 판매하느냐의 결정권은 순전히 생산자의 의지에 달려 있다. 호주내 곡물의 유통물량은 약 2.5~3.0백만톤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제분용 밀의 유통량은 약 1.8백만 톤이며 AWB의 물량은 50% 이상인 것으로 판단된다. 나머지는 생산자와 수요자와의 직접 거래나 중간상인에 의해 충족되고 있어 점차 유통 채널이 다양화되고 있다.

국내외 시장개발과 촉진을 위해 AWB에서는 정부와 같이 "White Wheat-Australian Gold" 구호아래 마켓팅 캠페인을 실시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기도 한다. AWB는 국내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수입업과 국내의 유통을 담당하기도 한다. 즉 국내 생산물의 국내유통과 수입 농산물의 국내 유통을 겸비하고 있다. 1996/97년 국내 사료시장을 겨냥한 미국산 콩의 수입과 판매(30%의 시장점유)는 그 좋은 예이다. 당분간 국내 밀 유통에서의 AWB의 위치는 견고하리라 예상된다.

국내 유통업의 자유화 확대는 AWB로 하여금 보다 많은 종류의 곡물에 관련된 마켓팅옵션을 생산자에 제공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즉 다양한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자극받고 있다. 이런 요구의 연장선에서 AWB내 호주국(Australia Division)

---

[10] 식용(Milling wheat): Prime Hard, Hard, Premium White, Asw, Noodle, Soft, General Purpose and Durum, 사료용: Feed wheat

은 국내생산 곡물의 수집과 일부 태평양 시장과 국내 시장의 무역 및 마켓팅을 책임지고 있다.

AWB의 독점적인 수출 마켓팅 권한과 책무는 지대하며, 이러한 업무는 AWB내 국제국(International Division)에서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그들은 수시로 해외 바이어와 교류를 하며,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맞는 협상을 수행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아울러 여러 가지의 수단을 통해 수집된 수입국에 관련된 정보는 생산과 마케팅에 이용된다. 실질적인 밀 판매 협상은 몇 개의 형태로 분류된다. 첫째, 상대국 정부나 정부조직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로 이 시스템은 중국, 러시아, 이집트, 이란 및 이라크에 적용된다. 두번째로는 호주와 최종 수요자 사이에서 중개를 하는 국제 곡물 무역상(International Grain Traders)을 통한 판매로 수출의 약 30%가 이 방법을 통해 선적되고 있다. 주요 국가로는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및 싱가폴이다. 세번째, 제분업자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이며, 마지막으로는 호주정부 차원에서 발주된 원조 차원의 밀이 판매되는 경우이다.

사실 이러한 중앙 집중적인 수출은 여러 면에서 이점을 가져오고 있다. 호주산 밀의 명성과 질에 대한 신뢰를 통해 판매증진이 가능하고, 총수입과 장기적인 시장기회의 극대화를 위해 용이하게 보관된 밀을 배분할 수 있다. 상품신용, 환율, 화물 및 각종 이자와 위험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장기계약의 협상, 실뢰할 수 있는 공급자로서의 신용장 개설, 규모의 경제 실현, 교섭력 증진 및 시장내 생산자 위험의 분산 등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

3.4. 판매수익 정산

대부분의 호주 생산 밀은 AWB의 통합 시스템(AWB's pooling system)에 의해 유통되며, 수익금이 분배된다. 이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준은 인도기간, 지역 및 품질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며, 이의 운영을 위해 많은 수의 국가적인 범주의 통합체(pools)가 각각의 시즌에 설립된다. 통합시스템 운영의 초기에 보다 엄밀한 등급화와 분리작업이 종자의 종류별로, 품질별로 실시됨은 당연하다. 통합적인 이 제도내에서 밀 판매로부터 발생되는 수입과 비용을 균등하게, 협력적으로 처리하기가 용이하다.

마케팅비용과 생산자에게 지급키 위해 필요한 자금의 차입이 AWB내의 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해 통합 관리된다. 일차적으로 통합관리기금으로부터 유통발생비용이 지급된다. 통합시스템 아래, 저장, 조작 및 운송 등의 활동에 의해 발생된 비용은 일정한 기준에 의해 각 생산자별로 분배된다. 아울러 AWB는 수집 밀의 최종판매 처리 이전에 생산자에게 일부의 판매대금을 지급한다. 즉 수집 밀의 최종 현금화 이전에 일정분의 대금이 생산자에 지급되고 그후 몇차례에 걸쳐 판매와 대금의 정산이 이뤄지는 것이다.

제일 먼저 생산자에 지급되는 것은 수확시 지불(Harvest Payment)이다. 이는 보통 11월~1월사이에 지급되는 것으로 밀의 AWB인도 후 3주내 지불된다. 이때의 지급규모는 예상된 총 지급액의 약 80%에 해당되는 것이다. 다음에 지급되는 것은 수확후 지불(Post-

표 4 호주의 Pool Payments, 1996/97

단위: A$/ton

	수확시 지급	수확후 지급	최종정산지급(추정)[1]	총지급액
Prime Hard	176.00	24.70	31.30	232.00
Australian Hard	164.00	21.40	27.60	213.00
ASW Noodle	168.00	23.70	37.30	229.00
Australian Premium White	156.00	22.20	26.80	205.00
Australian Standard White	152.00	21.70	26.30	200.00
Australian Soft	156.00	22.20	28.80	207.00
General Purpose	144.00	20.70	27.30	192.00
Feed	116.00	23.50	28.50	168.00

주: 1) 1997년 11월 10일 기준

자료: AWB

Harvest Payment)로 전체적으로 수확이 끝난 후 계산되어 3월 중에 지급된다. 이후 최종지급 정산(Final Payment)때까지 한두번의 추가 지급이 있게 마련이다. 이 과정에서 밀의 판매가 일시에 이뤄지지 않거나, 신용에 의해 판매되어 대금회수가 지연될 경우 수년에 걸친 최종정산의 경우도 간혹 있다. 물론 신용판매의 경우 최종책임자는 AWB이다. 1996/97년도 밀의 품종별 톤당 통합지급의 내역을 보면 〈표 4〉 와 같다.

최근 국내시장의 규제완화로 인해 AWB는 다른 곡물도 취급하고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도 위의 통합관리시스템은 운영된다. 다만 과거와 다른 점은 생산자가 통합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것인가 혹은 현금판매(a cash-at-silo)할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한다는 점이다. 국내시장의 적기공급을 위해 AWB에 의해 이용되는 방법 중의 하나가 일시불 현금에 의한 밀의 수취이다. 이때 대금의 정산은 현물의 저장고(silo) 인도시 이뤄진다.

4. 소비 및 수출

4.1. 국내소비

호주내 밀의 국내소비는 연간 약 3.5백만톤에서 4.0백만톤 정도이다. 식용을 위한 소비량은 약 1.8백만 톤으로, 이 가운데 순수식용을 위한 제분업자의 밀 수요량은 연평균 약 1.5백만톤 정도로 추정된다. 360,000톤 이상은 전분(starch)과 그루텐(glutin: 밀가루에서 전분제거)의 제조에 이용되고 있으며 기타 여러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사료제조[11]를 위한 수요량도 적지않아 1996/97년의 수요량은 1.2백만톤에 이른다. 아울러 겨울밀의 성공적인 재배확대와 곡물사료를 이용한 축산물 수출 증대는 장기적으로 사료밀 수요를 증대시킬 것으로 보인다. 국내소비 가운데 약 500,000톤은 종자로 보관된다.

[11] 호주내에서 사료제조를 위해 이용되는 곡물의 규모는 약 6백만톤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표 5 **호주의 밀 수급구조**

단위: 천톤

	공 급			수 요					
	전년재고	생산	가용량	국내소비				수출	재고
				식용	사료	종자	계		
1990/91	3,327	15,066	18,393	1,691	1,226	323	3,240	11,990	3,164
1995/96	1,603	16,504	18,107	1,838	1,778	510	4,126	13,298	683
1996/97	682	23,702	24,384	1,847	1,178	486	3,511	19,188	1,454

주: 자료의 출처에 따라 약간의 수치 차이가 있음.

자료: ABARE

4.2. 수 출

호주내 생산된 밀은 대부분 수출에 의해 현금화된다. 밀은 두가지 형태로 수출되는데, 하나는 상업적인 무역베이스에 의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원조용으로 수출하는 것이다. 호주 밀의 수출물량은 해마다 변화가 상당히 심하다. 최근 세계 곡물시장의 호황에 힘입어 호주의 수출물량도 증가하였다. 그러나 지난 10여년의 수출물량 변화를 보면 3~4년을 주기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이는 주요 밀 수입국들의 생산량 변화, 이에 부응한 수출국들의 생산변화와 국제시장에서의 가격변동이 복합주기적으로 나타난 결과이다.

호주의 밀은 세계 50여개국에 수출되고 있다. 1996/97년도 호주 밀이 선적되어 나간 주요지역을 보면, 중동지역이 전체의 42%를 상회하는 약 8,000천톤을 차지한다. 인도주변국가의 물량이 약 3,500천톤으로 18% 정도에 이르고 있어 인도지역과 중동의 물량은 호주 전체수출의 60%를 넘는다. 동남아시아 역시 20%에 가까운, 약 3,700천톤의 주요 수출대상 지역이다.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의 물량도 약 2,200천톤, 11%를 보여 네번째 주요 수출지역이다.

호주 밀 수출의 가장 큰 고객은 이란(3,350

표 6 **유형별 호주의 밀 수출**

단위: 천ton

구 분	상업적 수출	식량 지원용	합계(US$/톤)
1987/88	9,605	255	9,860(137.72)
1988/89	11,010	277	11,287(175.58)
1989/90	10,353	311	10,664(156.45)
1990/91	11,628	144	11,772(128.17)
1991/92	6,887	228	7,115(164.47)
1992/93	10,079	172	10,251(154.70)
1993/94	13,466	208	13,674(156.81)
1994/95	6,157	182	6,339(186.96)
1995/96	13,053	162	13,215(232.50)
1996/97	18,825	148	18,973(193.86)

자료: AWB

표 7 **주요 국별 호주의 밀 수출규모**

단위: 톤

구 분	1992/93	1993/94	1994/95	1995/96	1996/97
이집트	1,320,318	1,358,043	-	739,460	1,665,297
인도	1,049,902	-	-	-	1,632,743
인도네시아	974,010	1,187,478	1,161,657	1,959,258	2,368,684
이란	1,118,996	2,592,500	523,766	1,878,536	3,350,196
이라크	105,000	334,701	101,638	50,303	814,660
일본	1,114,126	1,178,963	1,253,526	1,147,736	1,267,800
한국	975,179	1,245,526	628,508	702,908	689,020
말레이시아	646,604	687,191	588,481	797,554	637,573
파키스탄	216,527	43,450	71,946	233,137	1,307,594
터어키	-	44,000	-	142,872	411,619
예멘	233,199	322,142	-	253,561	628,963
합 계	10,251,007	13,673,858	6,338,516	13,215,364	18,973,412

주: 재고제외

자료: AWB

천톤), 인도네시아(2,369천톤), 에집트(1,665천톤), 인도(1,632천톤)[12], 파키스탄(1,308천톤), 일본(1,267천톤) 및 한국(689천톤)이라고 할 수 있다[13]. 이들 7대 주요 무역국의 수입물량은 약 12,300천톤으로 전체의 65%에 이르고 있다.

한편 최근 6년여 동안 세계 밀재배면적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세계 주요 밀수출국들의 생산량 또한 꾸준히 증가하여 1996/97 생산량은 583백만톤(역사상 2번째 기록)에 이르고, 이에따라 재고는 109백만 톤으로 증가하였다. 1996/97년의 경우 전통적인 밀수입 국가들 러시아, 브라질, 모로코, 터키 등의 양호한 작황으로 인한 수입수요 감소가 이란, 인도, 이집트, 이라크 등의 수입수요 증대로 상쇄되어 가격하락은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밀시장에서의 판매경쟁은 첨예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호주 밀의 수출시장에도 영향을 끼쳐 수출감소도 예상되고 있다.

5. 맺음말

현재 호주는 국가 경쟁력 제고정책에 의거, 관련된 규제완화, 공조직의 사유화 및 기반시설의 확충에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선상에서 호주의 밀 산업도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중요한 세가지의 변화와 호주의 밀 산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몇가지의 시사점을 정리하고자 한다

5.1. 호주 밀위원회의 사유화

AWB는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잘 알려

[12] 인도는 불가리아, 레바논 등과 같이 1996/97년도에 새롭게 개발된 시장이다. 물론 과거의 무역실적이 있으나 최근 3년 동안 밀의 거래가 없어 왔다.

[13] 이라크의 수입물량이 815천톤으로 한국보다 많으나 여기에는 UN의 "food for oil" arrangements에 의한 700,000톤의 물량이 포함되어 있어 정상적 무역으로 보기 힘들다.

진 중요한 마켓팅 조직이다. 호주내 5번째로 큰 수출업자로 연간 판매액은 AS$47억(1996/97년)에 이른다. 잘 알려진대로 이 조직은 호주내 40,000여 곡물생산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기술개발에서 해외무역 및 투자까지의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현재 법적인 지위가 보장되어 있는 AWB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작업[14]이 진행되고 있다. 계획에 의할 경우 1999년 7월 1일까지 현재 밀유통법에 의거해서 조직되어 있는 AWB는 생산자들 자신들에 의해 소유되고 관리되는, 말 그대로 사유화가 되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호주회사법(Australian Corporations Law)에 근거하여 AWB는 AS$550백만의 자본금을 가진 일반회사와 같은 사유화된 조직으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1996년에 조직된, AWB 및 정부대표, GCA (Grains Council of Australia) 및 기타 실무진으로 구성된, 작업반(Working Group)은 보다 효율적인 조직 성격의 변환을 위해 노력했으며, 그 결과로 생산자협동모델(Grower Corporate Model)[15]을 제시하여 기본지침으로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향후 새로운 조직체의 사업성격과 진로 등에 대한 모색을 위해 사업검토팀(Business Process Review)이 결성되어 기업전문 컨설팅의 조언아래 발전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실질적인 AWB의 사유화 작업은 1998년에 이뤄진다. 10월에는 위원회의 선거가 있을 예정이다. WIF[16](Wheat Industry Fund)의 주식화 과정을 통한 자본화도 추진된다.

또한 곡물대금의 사전 지급시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경우에 이뤄지던 정부의 보증이 1999년부터는 중단될 예정이다. 아울러 밀 수출시장에서 누려온 독점적인 지위도 국가경쟁력 제고의 차원에서 1999/2000년에 정부에 의해 재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1999년에 AWB는 3개의 개인회사로 그 모습을 갖추게 된다. 이들 3회사는 그간 AWB에서 수행하여 온 업무를 분업하여 담당하게 된다. 하나는 총괄회사(Holding Company)로 밀 수출 및 종합처리제도(Pools)를 제외한 기존의 모든 상시적인 AWB업무를 인수한다. 특히 매 시즌 자금차입시 그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은 풀제도운영회사(Pool Company)가 발족하는데, 국내외 마켓팅과 밀 통합제도(Wheat Pools)를 운영하게 된다.

---

[14] 1991년 "Grains 2000 Conference"에서 국제 밀마켓팅의 여건 변화 아래, 호주 밀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이를 통한 생산자 수익증대를 위해서는 AWB가 보다 많은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밀 산업과 정부는 새로운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왔다. 이를 위해 1989년부터 징수해 온 WIF(밀생산자에 대한 강제징수)를 1999년까지 A$550~600백만 징수하여, 자금을 확보하는데 의견을 모았고, 1996년 Grains Week(GCA's Annual Conference)에서 관계 Anderson장관은 AWB 발전방안의 세가지 지표-생산자 소유 및 관리, 자립(정부로부터 독립), 완전 사업화(fully commerciality)가 제시된다. 다만 밀 산업의 안정화를 위해 수출에서의 독점성은 1999/2000년까지 유보되도록 하였다. 1996년 작업반(Working Group)이 조직되었고, AWB의 전환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15] 1997년 4월 곡물주간(Grains Week)에 Anderson 장관은 작업반이 제시한 "The Grower Corporate Model"의 기본 골격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16] 새로 출범할 회사의 자본금으로 전환될 WIF는 농가 밀 정전가격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 축적된 것이다. 이는 1997년 9월 30일 현재 A$444백만에 이르며, 1999년 6월 징수 중단시까지는 약 A$550~A$600백만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무역전담회사(Trading Company)가 조직되어 밀을 포함한 곡물의 전문적인 무역업무를 총괄할 것이다.

AWB는 이러한 혁신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적지않은 이익을 기대하고 있다. 밀의 단독수출창구를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다른 것과의 차별화가 계속 가능하며, 법적구속과 생산자 소유·운영에 의해 적극성과 독립성이 쟁취될 뿐만아니라, 사업의 유연성도 증가하리라 보고 있다. 또한 대규모 자산소유와 탄탄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국내외 경쟁시장에서 그 지위를 더욱 확고히 하리라 예상하고 있는 것이다.

5.2. Joint Venture 투자

호주 AWB는 해외시장의 개척과 직접적인 참여에 매우 적극적이다. 안정적인 공급가능 기반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인 것으로 보인다. 어차피 호주 밀의 생존은 해외시장의 개척과 꾸준한 관계유지에 달려있다. 이를 위한 고려대상 수단이 적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중에서도 수요국의 수요패턴을 고려한 공급과 직접적인 해외투자는 다른 어느 것보다 주요한 수단으로 보인다. AWB의 아시아식품연구소(Asia Food Research Centre)에서 호주 최초로 동양인들의 기호에 알맞은 찐빵생산을 위한 설비(steamed bread plant)를 만들었다던지, 1996/97년에 ISO9002 인준획득 및 품질관리를 위한 세밀한 등급분류와 위생적 관리는 수출시장에서의 입지강화에 이바지해 오고 있다.

해외합작을 통한 시장강화 또한 호주 밀수출 촉진수단으로 볼 수 있다. 일본 전국농업협동조합과 51%의 지분을 갖고 Joint Venture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1993년 이래 중국내에 Shenzen Southseas Grains Industries (SSGI) 제분공장을 운영하여 오고 있다. 여기에 장기적인 투자안목 아래, 거대 중동시장을 겨냥한 이집트 수에즈운하 부근 밀제분공장경영의 참여가 예정되어 있다. 이 Five Star Flour Mill공장에 대한 호주의 지분은 30%이며 1998년 5월 가동예정이다. 또한 베트남 호치민시 근처에 설립 예정인 제분공장에의 17.5%지분 참여 또한 동남아 지역시장을 겨냥한 것임에 틀림없다.

5.3. 겨울밀의 개발과 보급

1990년 이후 호주내 다우지역의 밀 생산자[17]들은 가축에 이용될 수 있는 곡물재배를 갈망하여 왔다. 아울러 뉴질랜드나 인도네시아, 한국 등으로부터의 사료곡물 수요증가는 여기에 알맞은 밀의 재배욕구를 자극하기에 충분하였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 AWB는 호주과학산업연구소(CSIRO: Commonwealth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Organization)와 지난 5년간의 계약하에 적합품종개발에 박차를 가해왔다. 최근 2년간에는 실용화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1996년은 겨울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된 해이다. 많은 부류의 관계자들은 새로 개발한 품종이 녹병에 대한 저항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일부에서는

[17] 호주내 주 재배지역으로는 호주 동쪽 해안지역, 뉴사우스 웨일즈 동부해안, Ballarat와 Hamilton사이의 빅토리아 서부지역과 멀게는 Gippsland, 남오스트렐리아 남동 저지대 및 북 타스마니아이다. 그리고 겨울밀은 4월~5월에 파종되고 1월~2월에 수확된다.

겨울밀 종자로서 새로 개발된 품종이 이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뉴 사우스 웨일즈주에서 녹병에 예민한(rust susceptibility) Lawson종자와 몇 몇 다른(AWB의 개발과 무관) 종자가 문제되었다. CSIRO의 밀 육종프로그램(winter wheat breeding program)이 도마위에 오른 것은 당연하였다. 1997년 2월 급기야 관련자들의 회동이 이뤄졌고, 여기에서 극히 제한적인 지역과 시기, 방법 등에 의해 재배와 개발을 지속하도록 하는 결론을 맺었다. 이후 CSIRO의 육종프로그램의 초점은 녹병에 강한 내성을 가진 미래형 종자의 개발에 모아지고 있다.

두번째로 1996년초에 보급된 개발 종자는 Paterson이다. 이것은 녹병에 매우 강한 내성의 유전자를 가진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품종의 재배지역에서 내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녹병균이 발견되고 있다. AWB와 CSIRO에서 개발된 모든 품종은 국가녹병관리센터(National Rust Control Centre)의 검증을 받고 있으나, 아직도 해결해야 할 녹병균이 남아있고, 이것의 퇴치가 육종프로그램의 핵심이 되고 있다. 1998년 BYDV내성과 녹병내성을 가진 또다른 Gorden 종자의 파종이 있게 되며, 2000년까지 이 개발, 보완작업은 지속될 것이다.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겨울밀 종자들은 앞으로 더 많은 지역에서 재배될 것으로 기대된다. 뉴 사우스 오스트렐리아와 빅토리아의 관개지역까지도 확대가 예상된다. 현재 겨울밀(the long season wheats)의 생산면적은 약 45,000ha이고 여기에서 약 140,000톤이 생산되고 있다. 아마도 예상컨데, 2000/2001년에는 호주내에서 사료용 겨울밀의 생산량이 500,000톤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5.4. 호주 밀 산업으로부터의 시사점

다량의 밀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해야 하는 우리나라로써 과연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수입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이다. 그런데 호주의 밀 산업을 보면서 몇가지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수출국의 생산시기를 이용한 수입 안정화 전략이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캐나다, 호주로부터 밀을 수입하고 있다. 그런데 호주와 미국 및 캐나다와는 밀의 생산시기가 반대이다. 따라서 이 점을 적절하게 이용할 경우 비교적 안정적인 수입이 가능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전략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정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두번째, 호주의 단일창구판매 시스템을 원용한 단일창구수입(One Desk Importing)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수입민간인들로 구성된 조직을 통해 세계시장에서 국내수입업자를 대표해서 협상하고, 수입하는 것이다. 현재의 관련협회 기능을 조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국내 수입업자들에 의한 기금축적을 통해 강력한 교섭기구로 성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세번째, 호주와의 합작추진이다. 합작은 생산과 가공분야에서 가능하다고 본다. 이러한 합작의 추진은 우선 호주와의 관계 개선이란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필요로 하는 밀을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할 수 있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

참 고 문 헌

AWB, *1994/95 Annual Report*, 1996

AWB, *1995/96 Annual Report*, 1997

AWB, *1996/97 Annual Report*, 1998

ABS, *1994/95 Agriculture-Australia-*, ABS Catalogue No. 7113.0, 1997

ABS, *Yearbook Australia*. 1995~97